

GS그룹, LG에서 공식분리 새출발!

3월31일 그룹 출범식 갖고 경영이념도 선포 ... Value No.1 GS 추구

GS그룹이 <Value No.1 GS> 달성을 목표로 2005년 상반기에 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을 완성할 예정이다.



서경석 GS홀딩스 사장은 3월31일 “현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열사별 비전을 조율하고 있으며 6월께 그룹의 구체적인 중장기 비전 및 성장전략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그룹은 3월31일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GS홈쇼핑의 한홍비 쇼핑호스트의 사회로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구분무 LG 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I 및 경영이념 선포식>을 열어 그룹 출범을 선언하고 에너지·유통 분야의 선도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창수 회장은 기념사에서 “GS는 고객만족을 최고의 사명으로 하는 생활 속의 동반자, 임직원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보람된 일터, 투명한 경영과 탁월한 성과로 인정받는 기업시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사랑 속에 최고의 주주 가치를 창출하는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두가 선망하는 <Value No.1 GS>를 만들어가자”고 제창했다.

GS그룹은 <Value No.1 GS>를 그룹의 캐치프레이즈로 선정할 계획이다.

GS는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경영이념과 △고객만족 △생활가치 향상 △보람 △존경과 배려 △열정과 활력 등의 임직원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최고가치를 지닌 기업(Value No.1 GS)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GS는 자회사와 계열사간의 일체감 형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계열사간 공동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GS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자회사 및 계열사별로 대대적인 홍보 및 광고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GS는 3월31일을 창립기념일로 정했고, 본사 건물인 LG강남타워는 GS타워로,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있는 문래빌딩은 GS강서타워로, GS건설이 입주한 역전빌딩은 GS역전타워로 이름을 바꾸었다.

GS는 세계적인 CI 전문기업 미국 Landor에 의뢰해 사업영역(에너지·유통), 사업비전, 주 고객층 등을 감안해 주황, 초록, 청색을 바탕으로 한 CI도 최종 확정했다.

GS는 지주회사인 GS홀딩스와 GS칼텍스, GS리테일, GS홈쇼핑, GS건설 등 15개 계열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4년 22조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2005년 24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산규모는 2003년 말 현재 16조900억원으로 공기업 및 민영화된 공기업을 제외하면 세계 6-7위 수준이다.

<화학저널 2005/04/01>